

치솟는 생활물가...서민가계 '주름살'

치킨·피자서 우유·라면·과자·외식업체까지 잇따라 가격 인상 내년 최저임금·택시요금도 올라...“내 월급 빼고 다 올라” 한숨

“알바 구하기도 어려워졌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한 끼 때우기도 힘들어요.” 안모(여·24·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워낙 취입이 어려워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돈이 안 들어보고자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가도 너무 올랐다. 음식 배달비용이 1000~2000원 오른 데다, 음식 값 자체도 인상되면서 한 끼 식사비용이 1만원을 상회한다고 했다.

안씨는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외식·식품물가도 너무 올랐다”며 “치킨 1마리에 2만원 선까지 오르는 등 혼자 끼니를 때우기도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식품과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매일 그치지 않고 가격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물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인상을 시도하다 철회했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이날부터 가격을 평균 8% 올렸다.

황금올리브는 1만6000원→1만8000원, 통다리바베큐 1만7500원→1만9500원, 서프라이드 치킨 1만8900원→1만9900원으로 각각 인상되면서 치킨 1마리 가격이 2만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피자헛 역시 지난 16일부터 프리미엄 피자 리치골드와 치즈크러스트의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최근 와규 오리지널 단품을 83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했고, 소프트콘 아이스크림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는 등 휴서비스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지난해 11월 전체 세

품 74종 중 버거류 12종과 세트 15종, 디저트류 1종, 드링크류 5종의 판매 가격을 올린 것에 이은 추가 인상이다.

앞서 지난해말 KFC가 치킨, 버거, 사이드, 음료 등을 포함한 24개 메뉴 가격을 100~800원 인상한 바 있으며, 굽네치킨도 지난달부터 1건당 1000원의 배달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외식업체가 최저임금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잇달아 가격인상에 나서며 시장에서 식품업체의 인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농심의 경우 지난 15일 새우강·양파리 등 스낵류 54종의 출고 가격을 평균 6.7% 인상, 팔도도 다음달부터 일부 컵라면 제품을 4.7%~9.5% 올린다.

서울우유는 지난 8월 우유 가격을 3.6% 올렸고, 최근 남양유업도 4.5% 가격을 인상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해태제과 부라보콘과 롯데제과 월드콘도 이달 가격이 200원씩 인상되는 등 식품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이날 한국소비자가 조사한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즉석밥(10.4%), 어묵(9.8%), 설렁떡(7.1%), 시리얼(7.0%) 등 30개 조사 품목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봐도 광주와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각각 1.8%, 2.1% 증가했고, 생활물가지수도 2.2%, 2.5% 씩 오르는 등 물가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높은 8350원으로 확정되고 광주지역 택시요금 인상도 추진, 한동안 물가인상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광주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가정주부 김현임(42·서구 관천동)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2명의 간식을 챙기는 게 말만치 않을 정도로 물가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아이들 하루 용돈으로 2000~3000원을 쥐고 겨우 과거 한 두 봉지 사먹을 정도로 물가가 너무 올라 부담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0.56 (+8.16)	↓ 금리(국고채 3년) 1.94 (-0.01)
↑ 코스닥 702.13 (+11.95)	↑ 환율(USD) 1128.60 (+0.10)



양우건설 담양에 '퍼스트힐' 680가구 분양

양우건설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에서 조성할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양우내안에 퍼스트힐' 분양에 들어간다. <조감도>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들어설 퍼스트힐은 담양군의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 지구인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에 들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아파트로, 7년 만에 처음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인 점 등으로 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두 2개 단지 680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96.5%에 이른다.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7개동(322가구·전용면적 59-95㎡)으로 조성되며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12층 9개동(358가구·전용면적 59-84㎡)으로 건설된다. 2단지에는 임대 96가구가 포함된다.

실내는 4~5베이 혁신평면을 도입, 주거 만족도를 높였고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해 단지를 쾌적하게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양우건설측 설명했다.

문화복합단지 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인근에 군청, 공공도서관, 경찰서 등도 위치한데다, 담양읍까지 5분, 광주 동북권(20분), 광주공항(30분) 등으로 접근이 용이해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는 게 부동산업계 평가다. 양우건설은 오는 23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상무역(2번 출구)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1600-6110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수수료 면제 서비스

20일~30일 창구 거래 혜택

광주은행(은행장 송승욱)은 창립기념일인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영업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창구 거래에 한해 조건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광주은행 영업점 창

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잔액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카드제발급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이우경 부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수수료 면제 특별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혜택을 제공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올 누적 실적 '부진의 늪'

금호타이어·대우에이텍·세화아이엔씨 '하위 20개 기업' 포함

광주·전남지역 주요 상장사들이 실적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순이익 등에서 '하위 20개 기업'에 포함됐다.

19일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전국 코스피 상장사 534개사(금융업·분할합병기업 등 기업 100개사 제외)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3분기까지 영업이익(연결 기준) 감소로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 하위 20위'에 오른 기업들 중 지역 상장사로는 금호타이어, 대우에이텍, 세화아이엔씨 등 3곳이 포함됐다.

금호타이어는 올 들어 3분기까지 678억 4300만원의 영업손실(연결 기준)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509억1300만원)에 견줘 손실 폭이 컸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우에이텍도 연결 기준 올 3분기까지 246억56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하위 20개 기업에 이름이 올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품 유통이력신고 여부 집중점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김장철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젓갈새우 등 관련품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장부 미기록·미보관 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미이행 하계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삼성 청년 일자리·중소기업 투자 본격화

'광주 SW 아카데미' 300명 규모 이달말 준공

삼성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소프트웨어 전문분야 양성을 위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에 들어간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지난 8월 발표한 180조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향후 5년간 총 1만명의 청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비롯, 서울과 대전, 구미 등 4개 지역에서 교육을 분산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이달 말 300명 규모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내 건립된다.

교육 과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1년 간 2학기로 구성되며 체계적인 코딩 교육과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교육도 진행된다. 교육 기간에는 월 100만원의 지원비와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삼성전자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도 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공동으로 매년 각각 1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조성해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25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36개의 중소기업들을 선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와 환경 개선 등에 돌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